

# 집안에 스님이 한 명 있으면 삼대의 공덕을 짓는다

## 만화로 보는 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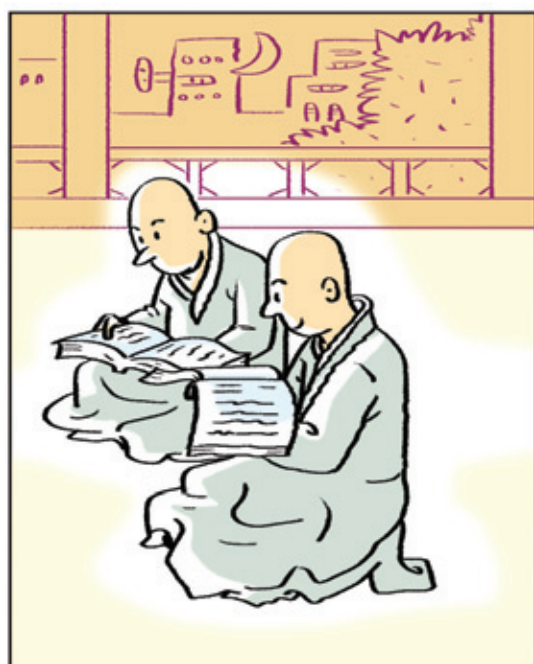
출가를 결심하고 사미계·사미니계를 받을 때까지를 행자라고 한다. 행자로서의 수행기간이 바로 스님이 되는 입문과정이다. 행자는 밥 짓는 이과 나누하는 일, 그 밖의 온갖 허드렛일도 기계이 도맡아 하며 사찰 소임을 경험하며, 출가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점검한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행자 기간은 자신이 평생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은사스님 밑에서 초심자로서의 여러 계행을 배우며 동시에 사찰에서 필요한 기본예절을 익힌다. 조계종을 예로 들면 조석예불, 조석송주, 불공의식, 사식을 익혀야 하고 계정의, 좌선의 참회정진 등 모든 습의를 익혀야 한다. 또 사미율의와 <초발심자경문> 등의 공부를 마쳐야 최소한의 기본예절 행자수련을 거쳤다고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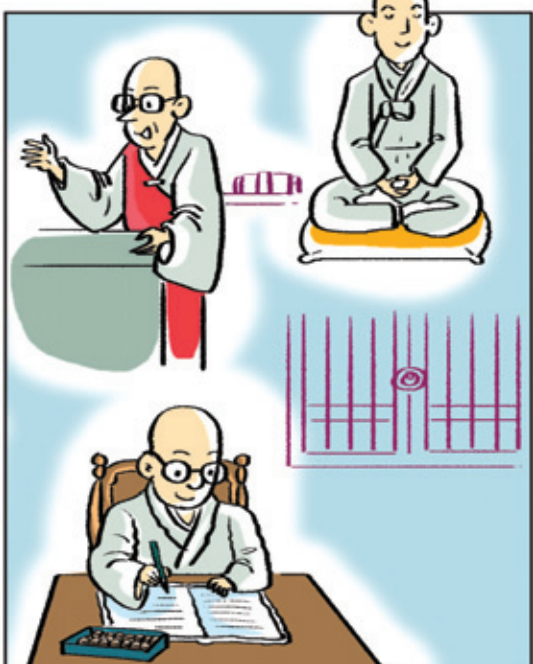
행자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되면 출가 입문자는 사미, 사미니계를 받는다. 사미·사미니는 18세 이상으로서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 소정의 행자 생활을 마치면 종단이 마련한 단일계단인 수계산림에 모여 최종 교육을 마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계를 받는다. 사미, 사미니가 받는 계를 사미 10계라고 한다.



사미·사미니가 조계종 승려 기본교육기관에서 4년간(8안거) 교육을 받고 시험을 합격한 후 연수를 마치면 비구계를 받게 된다. 조계종 승려기본교육기관은 전통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 그리고 동국대 불교대학, 기초선원이다.



마지막으로 종단 수계산림에서 5박 6일동안 마지막 교육을 받고 승려 자격을 심사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마지막으로 훗날을 먹인 삼베실에 불을 붙여 팔목에 올려놓고 진언을 외우며 계행(비구250계, 비구니348계)을 지킬 것을 서원하는 연비(聯誓)의식을 거친다.



비구계를 받은 스님들은 사찰에서 소임을 보며 사판승(행정승)으로서 나서거나 선방에서 안거와 만행을 하며 수행정진에 나선다. 또는 학림과 대학원 등에서 불교 연구를 진행해 학자의 길을 걷기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그림 · 오영식 화백

## 종단별 출가정보

### 각 종단 출가 특색 있어, 교육원 등 상시 상담

#### 1. 조계종 승려가 되는 길

##### ① 기초교육

조계종 출가는 조계종 소속 사찰이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출가는 크게 세 가지다. 인연이 있는 은사 스님을 만나 출가하는 경우, 은사 스님을 정하지 않고 사찰을 찾아 출가 하며 행자 생활을 하며 본사에서 근기에 맞게 은사 스님을 정해 주는 경우, 마지막은 행자 생활을 하며 귀감이 되는 스님을 선택해 은사 스님이 되어달라고 청하는 경우다.

그러나 ㉠ 문신자 및 자해자 ㉡ 간질 및 정신질환자 ㉢ 입산 이전 수족을 자른 자 ㉣ 결가부좌가 안 되는 자 ㉤ 연령이 15세 미만이거나 50세를 초과한 자 ㉥ 이혼일이 행자교육원 입교일 기준 6개월 미만이거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의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각 사찰 주지 스님이나 교무 스님의 허락을 얻은 후 행자생활 시작할 수 있다.

행자로서의 교육기간은 6개월인데 행자들은 5개월 동안 개별사찰, 교구본사에서 의식과 위, 운력(運力)과 소임을 비롯한 교육과 수행생활을 거친 뒤 1개월간 행자교육원에서 공동으로 집체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교육과정이 끝나면 행자들은 5급 승가고시를 거쳐 사미계(沙彌戒)·사미니계(沙彌尼戒)를 받는다. 사미계를 받은 스님들은 4년 동안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뒤 4급 승가고시를 거쳐 비구계, 구족계(具足戒)를 받아 조계종 스님으로 활동한다.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은 승가대학(강원), 중앙승가대학, 동국대 불교대학, 기본선원이다.

#### 2. 태고종 승려가 되는 길

태고종은 출가는 조계종 출가와 다르지 않다.

다만 태고종은 출가에 나이제한이 없다. 일반 사찰에서 3-6개월 이상 수행한 행자는 종단 지정의 합동독도 수계산림에서 사미, 사미니계를 받는다. 사미승은 기본교육기관인 선암사 전통강원과 동방불교대학에서 4년 과정 이수 후 구족계를 받는다. 태고종은 비구니가 되기 위해 2년 동안 수련을 받는 사미니를 부르는 식차마나니가 없다.

#### 3. 천태종 승려가 되는 길

천태종 출가의 가장 큰 특징은 은사 스님이 종정 스님이란 점과 모두 총본산 구인사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점이다. 천태종 승려로서의 서원이 세워지면 먼저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내에 있는 총무원 인사국에서 입산상담을 하여야 한다. 입산을 하기 위해서는 ㉠ 독신의 신분 ㉡ 만 13세 ~ 40세 ㉢ 채무사항이 없는 자 ㉣ 범죄사항이 없는 자 ㉤ 부모님 및 보호자의 동의를 충족하는 자에 한해 입산대기자로 등록이 되며 본격적으로 구인사에서 수행을 한다.

입산대기과정 동안 배식부(配食部) 혹은 농장(農場)에서 천태종 종정 스님의 입산허가(入山許可)가 날 때까지 대기하며 수행을 하게 된다. 입산허가가 내려지면 비로소 행자생활이 시작되는데 행자생활은 3년이 원칙이다. 낮에는 주로 대중식당의 공양준비, 경내청소, 농장생활 등의 수행을 하고 밤에는 염불의식 및 강원교육을 이수한다. 3년간의 행자생활을 마치면 천태종 종정 스님과 교의 면담을 통해 최종 출가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3·7일간의 수계교육을 받은 후, 수계식과 함께 은사인 천태종 종정 스님으로부터 범명(法名)과 도점(度牒)과 계점(戒牒) 그리고 가사와 범모를 받게 된다.



조계종 사미스님들이 승가고시를 보는 모습.

## 당신의 마음은 몇 개인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만 번 이랬다저랬다 간사하게 변하는 마음의 정체는?, 내 마음은 어디에?, 이러한 궁금증을 파헤쳐 마음의 본체 탐구를 위한 책.



글·김명우 | 224쪽 | 값 9,000원

## 마음공부 첫걸음

| 유식 입문 |

마음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처럼' 살기 위해 '마음'을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이 책은 유식 초심자를 위한 책으로 유식의 깊고 넓은 세계로 안내한다.

## 부처님 말씀을 읽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자

경전 읽기는 부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의 삶과 피, 호흡과 걸음걸이, 마음과 말과 행동이 부처님처럼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져 업장이 소멸되고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된다. 경전 읽기, 즉 간경의 목적과 방법, 간경의 자세, 깨어 있는 마음으로 독송하는 법, 선수행으로서의 간경 등 간경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글·고명석 | 168쪽 | 값 9,000원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경전 읽기

가꾸어주세요